

대학평의원회 제2022-1차 회의록

안 건

1.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감사 자문
2. 2021학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자문
3. 기타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회의일시 : 2022년 4월 18일(월) 14:00

회의장소 : 온라인 회의(ZOOM 화상회의)

의원 출결사항

구 분	인 원	성 명
참석의원	8명	김민철(의장), 이경복, 정재훈, 박천길, 차경재, 전지하, 최재영, 이정팔
불참의원	5명	임유영, 최용선, 윤정현, 정철상, 정용찬

회의진행 순서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2. 안건상정 및 진행

회의내용

김민철 의장 : 간사님께서 성원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 대학평의원 정수 13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차 경재 이 경복 최재영

김민철 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2-1차 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감사 자문, 2021학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자문, 기타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제 1 안건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감사 자문]

김민철 의장 : 먼저 제1안건인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감사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은 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 팀 장 :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감사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김민철 의장 : 안건에 대한 자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민철 의장 : 결산 내용에 기금적립금이 있는데 정부에서 학교에 정한 기금적립금 한도가 있습니까?

회 계 팀 장 : 기금적립에 대한 한도는 없지만 건축기금의 경우에만 사학특례규칙에 의해서 감가상각 한도 내에서만 적립이 가능합니다.

기획예산팀장 : 기금적립에 대한 상한은 없고, 건축기금의 경우에만 감가 상각 누계액에 대해서 적립하도록 되어있지만 보통 적립기금이 1,000 억을 넘어가면 교육부 또는 외부에서 적립금이 과다한 대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김민철 의장 : 2018년부터 꾸준하게 적립기금이 늘어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회 계 팀 장 :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적립이 된 것과 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 등이 적립기금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기획예산팀장 :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코로나로 인하여 경상비 부분에서 예산상 절감 된 부분이 있었고, 최근 3년간 다양한 국책사업들을 수주하면서 기존의 교비 사용내역을 대체하면서 교비에서 적립할 여지가 생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차 경래 이 경복 최재연

김민철 의장 : 알겠습니다.

차경재 의원 : 건축기금이 21년도에 224억정도 있는데 건물 노후시 사용하려는 용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 건물노후화가 심각해서 단계적 계획을 가지고 적립금과 국책사업비를 활용해서 주요 건물들부터 개보수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작년에는 1공학관과 조형과학관 개보수를 진행했었고, 올해는 1공학관, 자연과학관, 예술관 개보수를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개보수가 필수적인 공간들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25~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관리본부와 추가적으로 논의 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복 의원 :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호서대학교에 대한 대내외 지적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이 장애인 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과학관을 예로 들자면 5층 건물인데 승강기가 없어서 보행장애인이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수님들도 연구실을 떠날 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적립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건물들에 승강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팀장 :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사무처와 기획처가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는 1공학관과 자연대쪽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을 실무부서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 기존에 사용 중인 강의실들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TF구성과 더불어서 학장님들을 모시고 공간 조정을 진행한 이후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민철 의장 : 감가상각액만큼 적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호서대학교 1년 감가상각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회계팀장 : 감가상각 금액으로 50~60억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경재 이경복

최재영

김민철 의장 : 건축기금의 경우에는 건물의 신축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및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은 따로 없습니까?

기획예산팀장 : 건축기금은 신축만으로 사용이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개보수 비용으로 인출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보수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당해연도 본예산 안에서 시행하고 있고, 추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대규모 개보수 비용이 발생하면 건축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민철 의장 : 예산심사 때 사무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은 많지만 실제로 배정되는 예산은 적어서 사실상 개보수가 요청 되어지는 만큼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시설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처와 사무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다른 의원분들 의견이 없으시면 제 1안건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감사 결과에 대한 자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평의원 자문 사항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대학 본부 측에 잘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2 안건 2021학년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자문]

김민철 의장 : 제2안건인 2021학년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께서는 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 (2021학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김민철 의장 : 안건에 대한 자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민철 의장 : 감사에서 어떤 사례가 지적이 된건가요?

기획예산팀장 : 2021학년도 1공학과 노후시설 개보수비를 ‘비용’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계적으로 비용이 큰 시설 개보수비는 건물의

차경리 이명복

최세영

가치를 올리는 성격이라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200만원의 ‘비용’ 부분을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 입출결 전산시스템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전산개발 용역비’로 처리 되었는데 비용이 큰 부분이어서 ‘집기비품’으로 변경 처리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김민철 의장 : 회계학에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누어서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자산으로 반드시 잡아줘야됩니다. 공인회계사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인가요?

기획예산팀장 : 네 그렇습니다. 교육비 환원율이 대외평가에 주요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측에서는 지출에 대해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최근 타대학들이 자산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지적 받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호서대학교도 자산처리로 변경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민철 의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팔 의원 : 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민철 의장 : 다른 의원분들 의견이 없으시면 제 2안건 2021학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자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평의원 자문 사항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대학 본부 측에 잘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3 안건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김민철 의장 : 마지막으로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경복 의원 : 제가 2가지 사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양대학을 만들어서 교양대학 소속으로 교수님들을 많이 배정하고 있는데 실상 관리가 잘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공대, 자연대에서 교양에 많은 부분들이 지원되는데 차라리 각 단과대 아래에 하나의 학부를 배정하고 학부생은 없어도 전공은 살려두는

최경래 이경복 최재영

선진국 방식을 따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단과대 학장님들이 소속 교양 교원들을 관리할 수 있고, 수업 계획에 있어서도 쉽고 효율적으로 배정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금년도는 입시가 잘 되었지만 점차적으로 힘들어질텐데 호서대학교에 여러 가지 보직이 너무 많습니다. 역할이 크지 않은 주요보직은 겸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또한 교원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고 정년보장을 받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승진한 6명의 교수님들을 보면 6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정년을 보장 받게 되어 있는데 법적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호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업적이 탁월한 분들은 교수로 승진시켜주고 정년을 보장해주는 방향이 호서대학교를 위하여 좋을 것 같습니다. 적립금으로 쌓여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을 개선하는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재훈 의원 : 대학평의원회 의석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AI융합대학도 규모가 큰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공대와 분리하여서 별도로 대학평의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박천길 의원 : 회의 식순에 관하여 건의를 드리자면 이정팔 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평의원회 개회를 기도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김민철 의장 : 기획처에서 회의 순서에 기도를 넣어주시는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팀장 :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됨에 따라서 차기 회의부터 대면 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개회기도를 식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의장 : 기타의견이 없으시면 폐회 동의를 물겠습니다.

박천길 의원 : (동의합니다.)

최재영 의원 : (재청합니다.)

김민철 의장 :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제 2022-1차 호서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폐회를 선

차경리 이명숙 최민재

언합니다. 금번 의결된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경복 의원, 차경재 의원, 최재영 의원을 대표로 선임하여 간서명 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기재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의장 김민철

김민철

의원 이경복

이경복

의원 정재훈

정재훈

의원 박천길

박천길

의원 차경재

차경재

의원 전지하

전지하

의원 최재영

최재영

의원 이정팔

이정팔